

다산포럼

김민환



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은 이 제도에 대해 곧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정부가 브리핑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내놓지도 않거나 그 제도를 빙자해 기자가 공직자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년이 지난 현재 유능한 기자들은 정부의 브리핑에 별로 기대지 않는다. 특종을 하려면 기자들은 과거와 다르게 잘 아는 공직자에게 은밀하게 접근한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가 부처별로

이런 일이 나면 학자들이 귀찮아진다. 나한테도 전화가 걸려왔다. 다짜고짜 기자실 폐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답했다. 다른 기자에게도 같은 대답을 했다. 혹은 시뭘해하고 혹은 어이없어했다. 분명히 말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내 생각은 같다. 기자실은 없어져야 한다. 우리 언론의 선진화를 바란다. 기자실을 지금 모양 그대로 두겠다는 후보에게 표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부가 기자실에 못을 박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보공개법을 다시 손보는 일이다. 그 정보 정보를 나르는 점이라면 진실장에서 꺼내 주방으로 옮겨놓아야 한다. 그 방법을 통해 국민이 정보다운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정부가 브리핑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기자들에게 풀어놓는 일이다. 브리핑 룸에서 정보가 넘칠 때, '기자실에 죽치고 앉아 답할 기사를 쓰는' 기자는 절로 사라질 것이다. 정부는 그때 가서 텅 빈 기자실에 못질을 하면 된다. 꼭 대못 일 필요도 없다.

<고려대학교 신방과 교수·다산연구소 대표>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자실에 못질할 시기

답시고 정보공개법을 만든 지 오래다.

그러나 그 법은 아직은 유명무실하다. 대다수 국민은 그 법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다. 그런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만 한 사람은 그 법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역시 알고 있다. 속이 시원하게 알고 싶으면

지연이나 확인 등의 줄을 대 공직자에게 직접 들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기자실을 통폐합하고 브리핑제도를 정례화 했다. 언론자들은 브리핑 제 실시를 의미 있는 진전

있는 브리핑 룸과 기사 송고실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기자실에 대못질을 해 놓고 물러나겠다고 공언했다. 한다면 하는 정부니까 부처 기자실이 임기 중에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기자실 폐쇄 방침을 밝히자 언론계는 별집을 수신 듯 아답이 났다. 당연히 반응이다. 브리핑제가 있으나마나 한 상황에서 아예 부처 기자실까지 없애면 기자들은 어떡하란 말인가? 기자단체는 물론 진보적인 언론운동단체마저 반대하게 됐다.

정부는 정보의 산실이다.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공적 정보를 정부는 끊임없이 생산한다.

그러나 정부의 정보 관련 업무가 생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하고도 충실하게 분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일에 가장 능숙한 나라로 흔히 미국을 꼽는다. 미국은 정보자유법을 만들어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민이 알고자 할 경우 정부는 법이 금지하는 사안을 제외하고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정부 부처는 뉴스 브리핑 제도를 통해 공적 관심사에 대해 정부가 가진 정보를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린다.

어느 나라가 정보공개제나 브리핑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다면 그건 그 나라가 민주주의를 잘 하고 있다는 방증(傍證)이다. 장식적인 이야기지만 민주주의를 제

대로 하자면 국민이 공적 관심사에 대해 많이 알아야 한다. 그래야 민주적 결정의 질이 높아진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

다산포럼

김민환

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은 이 제도에 대해 곧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정부가 브리핑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내놓지도 않거나 그 제도를 빙자해 기자가 공직자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가 부처별로

이런 일이 나면 학자들이 귀찮아진다.

나한테도 전화가 걸려왔다. 다짜고짜 기자실 폐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답했다. 다른 기자에게도 같은 대답을 했다. 혹은 시뭘해하고 혹은 어이없어했다.

분명히 말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내 생각은 같다. 기자실은 없어져야 한다.

우리 언론의 선진화를 바란다. 기자실을 지금 모양 그대로 두겠다는 후보에게 표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부가 기자실에 못을 박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한는 정보공개법을 다시 손보는 일이다. 그 정보 정보를 나르는 점이라면 진실장에서 꺼내 주방으로 옮겨놓아야 한다.

다른 하나는 정부가 브리핑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기자들에게 풀어놓는 일이다. 브리핑 룸에서 정보가 넘칠 때, '기자실에 죽치고 앉아 답할 기사를 쓰는' 기자는 절로 사라질 것이다.

정부는 그때 가서 텅 빈 기자실에 못질을 하면 된다. 꼭 대못 일 필요도 없다.

<고려대학교 신방과 교수·다산연구소 대표>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정부, 광주 '투기과열지구 해제' 왜 미루나

광주를 비롯한 지방 광역시 아파트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최근 아파트값은 0.14% 하락한 반면 수도권은 0.3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아파트 시장의 침체 가속화는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 불균형이 원인이지만 지방에도 무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제도가 부채질하고 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광주 등 지방 광역시의 부동산시장은 이미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에도 해제를 안 하는 정부의 태도다.

주요 경우 미분양 아파트가 1만여 세대에 육박하고 있다. 심지어 아파트 분양자들이 손해를 보면서 분양권을 매매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광주에서 열린 건설업체와의 간담회에서 5월 말이나 6월 초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을 심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지방 광역시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서둘러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지방경제에 솜뿔을 터 줘야 할 것이다.

목포 신외항 배후철도건설 재검토라니

감사원이 목포 신외항과 대불공단을 연결하는 배후철도 건설에 제동을 걸고 나서 전남도가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착공한 배후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낮으며 사업의 재검토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인근 산업단지와의 신외항이 활성화될 물동량 등 타당성이 있을 때까지 건설시기를 조정하는 등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목포신외항 배후철도는 차질이 없길 바란다. 목포와 영암 등 서남권은 신 성장지대로 부상하고 있다.

경제논리만으로 따져서는 안 된다. 수요가 중요하지만 SOC를 먼저 공급하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목포신외항 배후철도는 차질이 없길 바란다. 목포와 영암 등 서남권은 신 성장지대로 부상하고 있다.

NGO 칼럼

김화자



최근 광주 지역에서 가출한 10대 여자 청소년을 6개월간 모텔에 감금시켜 놓고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갈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과 우리 사회에 건전한 성문화가 조성되도록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 성매매수자 신상 공개해야

청소년 성매매의 경로는 인터넷 채팅 ▲티켓다방 ▲전화방 ▲노래방 ▲유튜브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가출 후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채팅과 티켓다방에 서 일하다가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인들보다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예방책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놀이문화공간을 확대하고 정착시켜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해 가도록 도와야 한다.

성인들보다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예방책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놀이문화공간을 확대하고 정착시켜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해 가도록 도와야 한다.

성인들보다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예방책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놀이문화공간을 확대하고 정착시켜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해 가도록 도와야 한다.

가정해체 등은 청소년들을 거리로 나오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평소 가정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아말로 청소년 성매매

계약해지 합부로 못하게 부동산중개인 올바른 중개해야

얼마 전 처남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토요일이라 계약금 마련이 쉽지 않아 일부 금액만 지불한 뒤 나머지는 월요일에 은행 계좌로 입금해 주었다.

이러니 부담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런데 며칠 후 다른 사람과 더 높은 금액으로 매매된 것을 알았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손바닥 뒤집듯 계약 해지를 부추기는 행위는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계약금이란 매도자 집안에 급한 사정이 생겼으니 다음날 다시 오는 게 좋겠다고 했다. 그래도 약속한 날이니 은행계좌로 입금해야 하지 않느냐고 해도 관찮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실제 건넌 돈은 명시된 계약금의 일부

▲김대환·광주시 서구 용동동

살모사에 대한 오해. 살모사(샬모사) 역시 마찬가지로 이름이 그대로 아무 비관 없이 계속 이어져 내려 온 것 같다. 외국에서는 뱀을 뱀이라고 부르지 않고 살모사라고 부른다.

일부 여름방학캠프 부ئات집 자녀 위한 잔치인가

여름방학을 앞두고 초·중·고생들을 위한 각종 캠프와 체험 프로그램 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외국어회화캠프, 과학캠프, 자연생태캠프, 레포츠캠프, 인성문화캠프, 1일 체험캠프 등 초등학생에서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캠프가 다양하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평소 학교에서 접하기 힘든 체험 등을 제공하는 데는 인색하고 주체측이 방학 특수를 노려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돈벌이에 너무 급급해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어 안타까운 것이다.

문제는 일부 캠프의 경우 참가 비용이 너무 비싸서 위화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해외캠프의 경우 단 며칠간의 행사인데도 400만~500만원이나 하는 캠프가 수두룩하다.

각 지자체나 단체에서는 영리를 떠나서 청소년들이 자연을 만끽하며 자립심과 상상력 등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좀더 저렴한 의미 있는 별도 캠프를 많이 운영했으면 한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無等鼓

아버지의 힘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는 자신의 아버지를 최고의 스승으로 생각한다. 그는 겨우 열셋살 때 아버지를 통해 골프와 인연을 맺었다.

막대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박세리를 길러낸 얘기를 주위사람들의 오해와 욕설, 심지어 '깡스터'라는 표현까지 들어

옛그제 한국을 방문한 세계적 축구스타 티에리 앙리도 6살 때 처음으로 아버지를 따라 운동장에 나가

11일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 맥도널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후보로 떠올라 주목을 받았다가 마지막 골

최고의 음식'이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19살 소녀는 딸 때문에 혼자 건너와

딸을 명예의 전당에 입성시킨 박세리의 아버지 박준철씨는 지난해말 박씨의 아버지 박성중씨와 대전을 떠나서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details and subscription rates.